

건강 칼럼

사람도 감염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정확히 알고 예방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닭, 오리, 야생조류 등에서 발생하며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며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병원성이라고 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많지만 사실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매년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높아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
조류인플루엔자 시의 전파 경로는 다양하다.

시가 발생한 국가에서 날아온 철새, 그 철새의 배설물과 오염된 먼지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이 A형생강국으로부터 오염된 축산



김형우 한국건강관리협회 내과과장

가공물 등이 유입되었을 경우 A형 생강국을 다녀온 사람에게 균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조류나 인간과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 같은 경우 7일의 잠복기가 있다. 이후에 발열과 동시에 기침,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동반되고 설사나 의식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폐렴이 나타나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이 돼 사망할 수도 있다.

드물게는 호흡기 증상 없이 위장관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과 치료법
혹시나 감염이 의심되는 지역을 방문 거주하고 있다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바이러스제를 부여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해 기능이 약해진 각 장기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도 중요하며 급

속히 진행될 경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공 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전신 장기의 기능이상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치료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대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새의 사체 및 배설물과의 접촉에 주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사체와 접촉을 금지해야 하며 위생복, 마스크 등의 보호용구 착용과 함께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조리 시에는 도구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며 열을 가해 조리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기침과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7일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일을 했거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다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독자제언

교통무법자 '전동휠', 안전수칙 알고 타자!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전동휠과 킥보드 등이 차체에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저녁에 운동삼아 천천히 거닐 때면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 전동휠을 타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 구동 교통수단은 유지비용이 적고 휴대성이 좋아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레저 스포츠와 교통수단 양쪽에 걸쳐 있어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반면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에 속하면서 전기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건도 일부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큰 혼선을 느끼고 있다.

지금부터 전동휠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아보자.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도로교통법」제50조제3항),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1 항).

또한 전동휠을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라 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전동휠을 타서는 안된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은 하거나 이를 하도록 시킨 고용주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므로 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즉,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는 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 및 제6항). 전동휠은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 시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우리 모두 위 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전동휠을 탄다면 우리 곁에 재밌고 유쾌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김정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다 큰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버리거나, 반대로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도심권 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중 약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몇몇 경찰서에서는 이에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는 본인 차량에 발생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곧바로 112 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회복과 가

해차량 특징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기에 가해차량 특징을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라는 정도는 시간을 기억하자.

둘째,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이다.

만약 피해 장소 주변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동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되고, 사실 CCTV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두자.

셋째, 블랙박스 영상 확보다.

피해 발견 시 곧바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 또는 녹화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녹화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리동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 바란다

도민들은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반기워하고 있다. 청문회의 오랜 진통 논란 속에서 어찌될지 애간장을 태우며 초조하게 지켜보아온 까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실력 행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의한 임명이라 더욱 반갑다. 또 있다. 김현미 장관이 우리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다. 김현미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은 그래서이다. 새정부의 모든 각료가 관공의 대상이나 도민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이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다른 광역시도 지역보다 형편이 없다. 도민들은 전북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물을 학수고대 해왔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출신인사를 각료로 챙겨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은 그래서이다. 그런데 도민들이 가장 바

라던 바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전북 출신 인사로 임명했으니 도민들이 어찌 반기워하지 않겠는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하려는 것은 것은 분명하다. 전북 발전이 곧 국토의 균형발전의 이점이다. 이것은 어느 한 두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다. 도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전북의 낙후는 도민의 수가 많다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1980년대에는 250만이 넘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은 180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역의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기니와 전북발전은 전국 균형 발전의 이점이다. 저변에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도 이득을 더 많이 누리게 된 쪽은 충청도이다.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권과 비교해 푸대접을 당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말하는 중에서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써주시기 바란다. 보다 많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으로 다른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발전을 도모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준치 꿈수 막아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에 오래 되었음에도 서울 쪽 인사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전용 회의실을 마련하는 등 그 움직임이 보이기에 심히 거북하다. 그러다가 뒤통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전북도는 이쪽의 정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서울측 인사들이 전용회의실을 따로 두는 것은 그 저의가 있어서이다. 이번엔 서울 준치 꿈수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데 전북도는 자들의 편법 작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본부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전북혁신도시의 미래가 불안해진다. 저들이 또다시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흔들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사안이 아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 발전을 이끌게 하는 동력이 될 게 분명하다. 혁신도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그 자리에서 우뚝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다 하기란 난망한 노릇이다.

전북도는 꿈수를 부리는 자들에

게 분배를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먼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혁신도시시는 이대로 완성될 게 아니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갖추어야 할 게 많다. 전주 근교에 혁신도시가 들어선 것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공공기관들과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좋기는 해도 아직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말할 수가 없다. 도민이 바라는 건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 추진 논란이 도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또 그것이 재발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이 사실을 새 정부에 알려야 한다. 전임 정부 때는 저쪽 관계자들의 의도가 조급씩 먹혀들었지 모르나 이제는 안 될 말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도민의 기대주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참에 전북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전북 출신 인사가 맡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